



서울대기독교인연합 | 2022년 1학기 개강예배 | 3월 21일 오후 7시 유튜브 송출

주제 | "설래임" 說來臨, 오늘 말씀이 내게 임하다
말씀: 창세기 12장 1~4절

일시 | 3월 21일 오후 7시
유튜브 송출

설교 | 이상갑 목사님 (산본교회, 청년사역연구소)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유튜브

개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개강예배가 3월 21일 월요일 오후 7시에 대학촌교회에서 진행된다. 개강예배의 말씀은 이상갑 목사(산본교회, 청년사역연구소)가 담당하며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4절이다. 유튜브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 칼럼... 주어진 교수
- 2면 서기연 대표 이임사... 정명현
신입생 환영 편지... 서육희
- 3면 학생기자의 글... 장동원
- 4, 5면 선교단체 소개
- 6면 신앙 AI 후기... 김유빈, 이다은, 김은비, 이환희
- 7면 서기연 소식
2021년 2학기 종강예배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원단금식기도회
서울대 선교 후원과 기도의 밤
- 8면 신앙 AI 모습

교수칼럼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누가복음 12장 42-43절



사회이다. 경제력에 의해 사회의 계급이 형성되고,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사람의 능력도 그 사람의 재산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회가 비정하다고 생각되지만 자본주의도 장점은 있는데 그것은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포함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주어진다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높은 연봉을 받고,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다. 성 프란체스코의 청빈사상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에는 잘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도 인생의 목표를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을 사는 것으로 하여야 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좇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추구할 돈에 대한 관점은 위 성경 구절처럼 '돈에 대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생요인이고 또 하나는 동기요인이다. 위생요인은 삶의 불편을 덜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서 생필품과 같은 것들이다. 반면에 동기요인은 꿈, 비전과 같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다 필요하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돈은 분명히 위생요인이지만 동기요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문제는 돈이 동기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위생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동기요인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맡아야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작년 말경에 나는 허리를 삐끗하였는데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기조차 힘이 들었다. 그때 나는 '허리를 건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할 뿐더러,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을 다녀오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돈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돈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하며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을 때 비전을 향해 더욱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돈, 건강, 그리고 관계는 모든 영적인 활동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재정에 관한 명령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자. 누가복음 12장은 재정 관리에 대한 많은 원칙을 집대성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당부는 12장 중간 부분에 나온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니 우리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내가 부유하게 살지, 가난하게 살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은 재정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다 (42-43절).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지혜로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 때

에 따라 집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재산을 형성하려면 지혜로워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은 재산은 나중에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일 수 있다.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법칙이 있다. 이러한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만큼 실제적인 것이다. 첫 번째는 '복리' 라는 경제 법칙이 있다. 그런데 이 복리의 법칙은 나를 위해 일할 수도 있고 나를 해롭게 할 수도 있다. 저축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칙이 이롭게 작용하고 빛을 진 사람에게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축하고 투자하여 재산을 형성하여서 복리의 혜택을 누리려 한다. 그리고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빛도 질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부채를 안고 시작하고,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며, 공부를 하기 위해 학자금 빌려야 한다. 이러한 부채는 다 투자를 위한 것이므로 좋은 빛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다. 복리란 처음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지만 언덕을 내려오는 눈덩이가 커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법칙은 투자위험과 투자수익은 같이 간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단기간 투자수익이 큰 반면에 실패할 확률도 크고,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은 투자수익이 물가상승에도 못 미치지만 대신 안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까? 성경에서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부자가 되려는 것은 위험한 곳에 투자한다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스크가 큰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만 하는 것도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번 종들은 나아가서 장사를 하였다고 한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했다는 것인데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법칙은 자본이 아주 많은 자와 자본이 적은 자가 내기를 하면 자본이 적은 자가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구슬이 1000개 있는 사람과 10개 있는 사람이 구슬치기를 하면 적게 가진 사람이 결국 지지 않았는가? 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우리는 대부분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 곳에 투자하면 잃고 따는 과정에서 자본이 먼저 바닥이 나서 파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자본이 무제한 있는 상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속히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본이 적은 우리는 과도한 리스크는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다소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기에 케이스 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천은 먼저 절약하여 종갓돈을 모아야 하며,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주어진 교수(경영학부)

서기연 대표 이임사

부르심의 소명을 향하여



사랑하는 서기연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서기연 대표로 섬겼던 정명현(서양사학과 19)입니다. 재직년 중앙위원으로서 선출되어 서기연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적게 되니 복잡미묘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특히 대표로 섬겼던 2021년 한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이야기를 나뉘보고자 합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목사가 되는 것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혹은 한발 더 나아간다면 선교의 사명을 띠고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와 비슷한 이미지들이 연상됩니다. 마냥 부담스럽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단어이기에 일상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리합니다. 단어 하나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게 누군가 서기연 대표로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부르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말까지만 해도 저는 서기연 대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서기연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당시 중앙위원으로 한 학기 더 섬기려고 했던 저는 서기연을 이끌 대표가 없다는 사실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서기연 공동체를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은 커져만 갔고, 서울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2월 7일, 1차 신앙OT 저녁집회에서 주제 성구인 이사야 43장 1절을 읽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말씀을 따라 읽던 저는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께서 제게 속삭이시는 음성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지명하여 부르신 곳이 과연 어디인지 묵상하던 중, 한 동역자님을 통해 대표 자리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제가 그 자리를 감당할 그릇이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감히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기에,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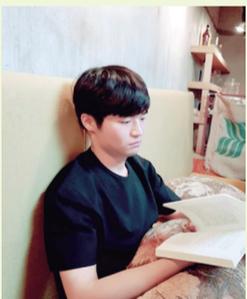
순종을 순종의 제사보다 낮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예비하신 목적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성구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처럼, 주님께서 대표로서의 섬김을 통해 저를 더욱 담대한 주님의 용사로 세워가셨습니다. 사역을 진행하며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난관을 만났을 때 임기 초반의 저는 좌절과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연합예배 찬양팀 모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를 함께 섬기기로 약속한 지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예배팀에서 떠나게 되며, 행사 당일 필요한 물품들이 없거나 사라졌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대안을 찾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미약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이 이전까지는 문자적으로만 이해되었다면, 대표로 섬기는 과정을 통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와 같이 부르심을 따라 섬기기로 결단한 믿음의 용사들을 보내 주심으로써,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의 구름을 걷어내셨습니다. 1년 전 저를 포함한 두 명의 중앙위원단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당면한 과제였던 개강예배를 세우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2021년을 마치 안식년처럼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던 제게 주님께서 마치 모세를 도운 70명의 장로들과 같은 일꾼들을 붙여주셨고, 1년 동안의 여정에서 해야 할 소임들을 빠짐없이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부족함을 채워준 중앙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사역을 진행하며 에벤에셀(도움의 돌)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께서 세웠기에 서기연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지나온 1년은 저 스스로가 주 안에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을 마음에 품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혹 여러분께도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서기연의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명현(서양사학과 19)

신입생 환영 편지



신입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과 석사과정 석우희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입시를 뚫고 새로 입학하는 22학년 학우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 대학 신입생의 삶이 어떤 느낌인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학우분들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을 빌어 신입생 학우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학부 신입생 시절 저는 몇몇 선교단체의 신입생 초청 예배를 기웃거리다가 과자 바구니만 잔뜩 받고 결국 성경공부보다 액티브한 교제가 특징이라는 말에 JOY에 들어갔습니다. JOY에서 한 학기 동안 섬김만 받고 군입대를 앞두고부터는 더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새로운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만나고 꾸준히 교체하는 곳인데, 당시 진로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에 짓눌려있던 저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피해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있니?’라고 물어보는 고마운 사람들이 그때는 왜 그렇게도 짜증이 나고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후 저는 참 외로운 잠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군대에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저는 아무도 없는 자대 독서실에서 평평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화려한 수사나 치열한 철학적 고뇌가 아니라 기독교가 믿는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한 기독교 청년의 평범한 설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목을 읽으면서 목사 아들로서 매주 지겹게 들어온 예수 십자가 부활과 사랑의 계명이, 내게는 너무나 ‘익숙한 복음’이 처음으로 참 좋은 소식으로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유를 통한 말씀들,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앞으로 배우고 읽게 될 어떤 것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인생 내내 도전해야 할 사명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심이 앞섰습니다. 사

람들도, 나도 전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믿게 된 이후로는 새로운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언젠가 서울대 재학생의 40%가 우울증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내 곳곳에 붙어있는 심리상담 안내, 매 학기 오는 자살 예방 이메일을 볼 때면 또 누군가는 방구석에서 외롭게 괴로워하고 있겠다고 짐작해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1학년 겨울 방학부터 우울했습니다. 저의 문제는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신입생 학우분들 중에서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심한 불안이나 허무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할 때 혼자 외롭게 있거나 그냥 무조건 바쁘게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방구석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나약함을 억눌러서 남보다 강한 인간이 되어 사회에 나가 성공하는 것보다 공동체 내의 회복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공동체는 없지만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믿을 수 없다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22학년 학우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 학우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대면하기 부담스럽다면 동기들끼리 전화라도 서로 자주 하면서 소식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잊지 말고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 아래 좋은 만남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서옥희(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학생기자의 글



지난 1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린 “박수근: 겨울을 기다리는 나목”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화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삶과 작품에서 느꼈던 바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박수근은 1914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한때 목회자가 되고자 마음먹기도 했던 그는 교회에서 본 밀레의 그림을 본 후로 화가의 꿈을 키워 나갑니다. 밀레는 “만종”, “씨뿌리는 사람” 등의 그림으로 유명한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는 당시 프랑스 민중들의 소박한 모습과 기독교적 영성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전시는 “하나님, 나는 이담에 커서 밀레와 같이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어린 박수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박수근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밀레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몇 걸음을 더 들어가면 박수근의 습작들과 스케치북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밀레의 “씨뿌리는 사람”을 옮긴 것이 있습니다. “씨뿌리는 사람”은 파종하는 농민의 모습에 예수님이 남기신 씨뿌리는 비유(마태복음 13:3~9)와 밀알의 비유(요한복음 12:24)를 같이 담아 감상자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림 공부를 시작한 때부터 눈앞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던 어린 박수근이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18살이 되던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이하 선전)에 수채화 “봄이 오다”로 화단에 발을 들입니다. 선전은 당시 화가들에게 명예인 동시에 생계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시였습니다. 그러나 박수근은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그림에 집중하지 못하여 여러 해 연속으로 선전에서 낙선, 고초를 겪습니다. 이때 아내 김복순을 만납니다. 새로 옮겨 간 마을의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그녀를 본 후(이 일은 이후 “빨래터”의 소재가 됩니다), 상사병에 몸져누울 정도로 박수근은 그녀를 사랑했고, 결국 둘은 작은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김복순은 남편인 박수근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전시실에는 그녀가 남편 박수근의 삶에 대해 적은 “박수근 일생기”라는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에는 선전에 연거푸 떨어져 상심하고 있던 박수근을 위해 기도하던 내용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1941년 선전에서 박수근은 드디어 아내를 모델로 한 “땀뚝질하는 여인”으로 입선합니다. 김복순은 자신이 모델이었기에 더욱 부담을 느꼈는지 “이 작품이 잘 그려져서 선전에 낙선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된 후 이복에 있었던 박수근은 계속 감시당하였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며 예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산으로 숨었다가 끝내 홀로 남하하게 됩니다. 가족들과는 1952년 노량진 피난민 수용소에서야 겨우 재회합니다. 갑자기 내려온 서울에서 그는 의지할 곳이 없었고, 현재 신세계 백화점 명동점 위치에 있던 미군 PX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연명하게 됩니다. 이 시절에 구상한 작품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의 작품, “나목(裸木)”입니다.

그림을 살펴볼까요. 화폭 한가운데 놓인 굵은 나목 한 그루는 그 자체로 아무런 아름다움도, 생명력도 느낄 수 없게 합니다. 어지럽게 뻗은 가지와 휘어진 기둥이 쓸쓸한 겨울 풍경을 자아낼 뿐입니다. 양옆으로는 아이를 업고 있는 여인과 광주리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박수근이 어리던 시절부터 병약했던 그의 어머니인지, 아이들을 지켜내고 모델이 되어준 아내인지, 누구로 특정하기 어려운 두 여인이 아무런 말 없이 찬 겨울나무 아래서 있습니다. 어두운 색조는 이 두 여인마저 처량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 쓸쓸한 풍경은 이 나무의 정체성이 “나목”이라는 데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나목은 이미 말라

하나님, 나는 나목처럼 기다릴래요

-박수근: 겨울을 기다리는 나목”展을 다녀와서

죽은 고목(枯木)과 대비됩니다. 추운 시절이 찾아와 그 잎을 잠시 떨궜을 뿐, 새봄이 오거든 다시 푸른 빛을 회복할 나무가 나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전쟁 시대의 황폐함, 생활의 빈곤, 버릴 수 없는 화가라는 소망이 주는 내적 갈등 등 그의 고통만을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새봄, 그 극복의 소망이 나목의 가지에 잎이 새로 달릴 곳마다 느껴지는 강인한 그림입니다.

박수근과 같이 미군 PX 초상화부에서 일한 적 있는 소설가 박완서는 동명의 소설 “나목”(1970)에서 다음과 같이 이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늙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목, 그 옆을 지나는 출디추운 김장철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봄에의 믿음-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라. 나는 홀연히 옥희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 있음을 안다. 그의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1960년대 들어 박수근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토록 바랐던 “밀레와 같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어릴 적 기도했던 꿈이 이뤄진 것입니다. 인생에 끝없이 어려움이 닥쳐오던 지난 시절을 견뎌내고, 자기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낸 결과이며 자신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 그리고 그 바탕에 있던 소망이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이즈음 박수근은 ‘겨울을 뛰어넘어’라는 글을 신문에 기고합니다.

“나는 워낙 추위를 타선지 겨울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도 채 오기 전에 봄 꿈을 꾸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만하면 얼마나 추위를 두려워하는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절의 추위도 큰 걱정거리니와 그보다도 진짜 추위는 나 자신이 느끼는 정신적 추위입니다.

세월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사람도 늙어가는 것이려니 생각할 때 오늘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일이 무엇인가 더럭 겁도 납니다. 하지만 겨울을 켜켜 뛰어넘어 봄을 생각하는 내 가슴에는 벌써 오월의 태양이 작열합니다.”
-“경향신문”, 1961.1.19. 4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정신적 추위를 안고 살게 됩니다. 새 봄이 찾아오는 이 날씨에도 풀리지 않는 추위들이 있습니다. 그 정신적 추위의 까닭은 다양할 것입니다. 학점, 진로, 구직, 인간관계, 생계, 신앙, 신념, 사회적 문제들 등이 지면을 전부 다 할애한다고 하여도 다 적지 못할 것입니다. 그 추위가 얼마나 강한지 어떤 이들은 그 삶이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박수근의 “나목”과 그의 글, 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 그 정신적 추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박수근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끝내 승리한 힘이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나목이 올봄을 믿으며 차디찬 겨울을 견뎌내듯,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다려봅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 우리가 세상에 바라는 것들에 얽매며 세상의 겨울에 갇히지 맙시다. 꽃이 피듯 아름다운 소망을 안고 나아갑시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 학기와 새봄을 맞이하는 독자 여러분, 특히 지난 몇 해 동안 고생했던 신입생 여러분, “오월의 태양이 작열”하듯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장동원 학생기자(중어중문 19)



귀가(1962)



나무(1964)



나무와 여인(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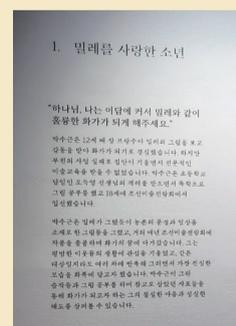
목련(1960)



실직(1961), 일할 거리 자체가 없었던 1960년대, 서울에는 많은 실직자가 그림처럼 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빨래터(1954)



전시장 입구의 글

2022 선교단체 소개글

네비게이토 선교회 (The Navigators)

대표: 박태준(지구환경과학부 14, 010-2528-0576)
SNS: 웹사이트 navigators.or.kr
한 줄 소개: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국제적이며 복음적인 기독교 기관입니다. 현재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 걸쳐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의 각 대학에서 네비게이토 선교회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대학 생활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그 열쇠는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장하는 면에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 2:52)

예수님께서서는 지적(지혜), 신체적(키), 영적(하나님과의 관계), 사회적(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면에서 균형 잡힌 온전한 성장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대학 기간 동안 각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균형 잡힌 성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밀려오는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믿음의 항해자(Navigator)가 되십시오.

두루선교회

대표: 왕다솜(재료공학부 대학원, 010-5017-0297)
SNS: 인스타그램 @duru_campus
한 줄 소개: 저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가는 두루선교회입니다

두루선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 (마4:23) 사역을 하신 것에 근거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지상명령 성취(마 28:18-20)를 비전으로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가진 선교단체입니다.

저희는 매주 소그룹별로 온/오프라인 제자훈련 모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배우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개인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의 제자훈련 뿐 아니라 교회, 학원(중/고등학교) 사역, 그리고 졸업 후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며 유기적인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 해산의 수고가 동반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평신도 제자화에 힘쓰는 두루선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서울대 성서학당 (IBS, Institute of Bible Study)

대표: 김용섭(재료공학부 18, 010-5360-7476)
문의처: 대표연락처
한 줄 소개: IBS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의 선택과 고민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성서학당(Institute of Bible Study) 'IBS'입니다. 서울대 성서학당 IBS는 서울대 캠퍼스 선교와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성경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말씀의 빛 안에서 돌아보며 간증하는 관계 중심의 캠퍼스 선교 단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겪는 삶의 고민을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뭇을 찾고 진실된 관계를 배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화요일 저녁 6시에는 정기모임으로 성서 강해와 교제를 나누며 분기별로는 섬김과 나눔의 여러 활동과 수련회를 함께 하며 삶의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주변의 지체를 돌아보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서학당 IBS!! 누구라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길 소망하는 여러분을 성서학당 IBS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한사랑선교회 (The Love Mission)

대표: 박승성 간사(010-6372-6128)
문의처: 대표 연락처
한 줄 소개: 3L(Love, Light, Life)
복음은 모든 증오를 녹여버리는 사랑(Love)이며,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Light)이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Life)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8)

서울대에서 1971년 태동된 공동체로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유일한,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가진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역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배자, 전도자, 양육자, 사명자로 세우는 양육과정과 기도모임, 매주 캠퍼스 노방찬양예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한국어교실”을 열어 한국어를 도와주며 친구관계를 맺고 사랑의 섬김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로 함께 자라가는 이곳으로 2022 새내기 여러분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ABSK (Asian Student Baptist Koinonia)

대표: 서홍준(건설환경공학 17, 010-2122-0791)
SNS: 인스타그램 @absk_seoul
한 줄 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 ABSK

ABSK는 Koinonia라는 헬라어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통해 성경의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온라인 비대면 미팅을 시작한 이후로는 서울 내의 대학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Harvard, MIT, UCLA, University of Alaska 등 미국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매년 전세계 ABSK가 함께 모여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CC (Campus Crusade of Christ)

대표: 고현서(심리19, 010-3223-4465)
SNS: 인스타그램 @snu_ccc
한 줄 소개: 전도, 육성, 파송의 비전을 품고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물결이 흐르도록!

CCC는 TFJ(Truly Follow Jesus) 하는 건강한 영혼을 가진 학생들이 캠퍼스에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캠퍼스에는 얼어붙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CCC는 평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기도, 목요일 저녁 채플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TFJ 하고 싶은 지체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캠퍼스에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CCC에서 즐거운 대학생활 함께해요!

CMI (Campus Missions International, 국제대학선교협의회)

대표: 이상윤(화학 16, 010-8728-9350), 조지은(사회학과 18, 010-3115-0913)
SNS: 인스타그램 @cmi_snu
한 줄 소개: 우리 삶과 캠퍼스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하고, 시대와 캠퍼스에 목자의 마음을 품는 CMI

22학번 새내기 여러분 서울대학교 입학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해요^^. CMI(Campus Missions International, 국제대학선교협의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복음주의 대학생 선교단체예요. 1961년부터 50여 년간 한국과 세계캠퍼스를 성경 말씀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서울대 CMI는 '서울대를 위한 CMI, 예수의 CMI'의 목표 아래,

- 1) 인격적인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성장,
- 2) 매주 목요일 캠퍼스 예배
- 3) 학기별 수양회와 캠프로 폭넓은 교제와 영적 성장,
- 4) 큐티모임과 독서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Be a good worshiper, make a good worshiper!”의 비전을 갖고, 캠퍼스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하며 참 예배자를 세우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CMI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대학 생활을 만들어 가보아요^^

ECU (Elgrace Campus Union)

대표: 최민호(기계공학 18, 010-9502-1198)
SNS: 카카오톡 Elgrace Campus Union
한 줄 소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ECU

ECU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는 목표를 가지고 캠퍼스 복음화에 힘쓰는 모임입니다.

캠퍼스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전하며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모여 캠퍼스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중에도 함께 모여 혹은 각자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캠퍼스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쓰고 있습니다.

ECU는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각각의 지체들이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ESF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대표: 김승찬(약학 18, 010-8644-7407)
 SNS: 인스타그램 @dongjak_esf
 한 줄 소개: 말씀의 공동체 ESF입니다!

ESF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로 설립되어 캠퍼스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여러 대학교가 모인 연합동아리로 서울대는 동작ESF와 관악ESF에 속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회관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각 캠퍼스에서 셀모임을 드리고 비대면으로 아침/밤 QT를 하며 말씀을 공부합니다. 방학에는 수양회에 참여해 성경을 공부하고 여름/겨울 캠프를 가집니다.

MF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한국기독교학생회)

대표: 이찬형(화학공학 17, 010-4150-8069)
 SNS: 인스타그램 @snu_ivf
 한 줄 소개: 서울대학교와 한국과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머리와 마음과 몸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MF로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한국기독교학생회 IVF는 “캠퍼스와 세상속의 하나님나라 운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음으로 변화된 학생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서울대학교 IVF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 하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한다.(호 6:6)
- 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사랑을 배워간다.(요 13:14-15)
- 셋. 우리는 인생과 세상에 대해 자유롭게 고민하며 성경적 대안을 찾아간다.(빌 1:6-7)
- 넷. 우리는 대학생활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롬 12:15-16)

서울대학교 IVF는 밀도 있게 말씀을 배우고, 삶의 다양한 영역을 성경적으로 세워가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IVF와 함께해요~

JDM (Jesus Disciples Movement)

대표: 허우진(산림과학 대학원 과정 20, 010-4010-8403)
 SNS: 인스타그램 @jdm_seoulsouthern
 한 줄 소개: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 (마 28:19)

JDM은 예수제자운동 (Jesus Disciples Movement)의 약자로 주님께서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비전을 중심으로 모인 선교단체입니다. JDM은 연합동아리로 서울대는 총신대, 숭실대, 백석예대, 가톨릭대, 장신대와 함께 <서울 남부>로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JDM에서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매주 화요일 7:30에 줌으로 진행되는 채플과, 여름&겨울집회가 있습니다. 또한 2학년이 되면 제자훈련(TTS)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말씀을 배우며 섬기도록 배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리더와 1-3명이 지체들이 함께하는 소그룹에서 말씀을 배우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이 외에도 줌으로 하는 성경통독 모임, 축구 모임 등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말씀도 먹고 싶은 새내기들 함께해요!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대표: 박지연(정치외교 19, 010-5398-5757), 조유빈(수의예과 19, 010-6651-5372), 최찬영(사회교육 19, 010-8790-4624)
 SNS: 인스타그램 @snu_joy
 한 줄 소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 spell JOY!

조이선교회(JOY)는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참 기쁨이 있다는 정신을 갖고 활동하는 선교단체입니다!

JOY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기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케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매주 정기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학기 중에는 각종 아웃팅, MT, 여행, 북스터디, 보드게임 등 다양한 활동들로 함께 모여 즐거운 대학생활을 누리고, 방학에는 수양회가 열려 전국에 조이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JOY는 현재 약 50여개의 대학교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전한 공동체입니다! JOY에서 예수님과 이웃을 섬기며 참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 JOYful한 대학생활 함께 누리보아요~!

LDI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대표: 장유민(아동가족 20, 010-2329-9975), 민소연(국어교육 대학원 20, 010-5679-8652)
 문의처 및 SNS: 인스타그램 @snu_ldi
 한 줄 소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세계 열방에 전하는 제자, LDI

서울대 LDI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20)에 순종하여, 영성과 인성, 전문성을 갖춘 사회 각 분야의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하기 위해 훈련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LDI에서는 1:1 양육은 물론, 캠퍼스 모임과 정기적인 기도회, 전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를 돕는 멘토와 든든한 신앙의 선배, 동료들이 함께 합니다. 지체들과의 교제와 간증, 나눔을 통해 아가페 사랑을 누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돕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는 전문인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면, LDI와 함께해요 ♡

SFC (Student For Christ)

대표: 김수향(정치외교 21, 010-2772-9211)
 SNS: 인스타그램 @seoul_u_sfc
 한 줄 소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 SFC입니다 :)

서울대학교 SFC는 개혁주의를 기반으로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큰모임’을 통해 성경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작은모임’을 통해 신앙적 고민에 대해 토의하기도 하고,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룹 모임, 소규모 식사 모임, 성경 캠프 등을 통해 함께 자주 모이고 삶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FC는 서울대학교에만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개강과 종강 때 서울지역의 타 SFC단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방학 때에는 전국 대학생 대회가 열려 더욱 많은 크리스천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에 대해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는 SFC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표: 최봉수(치의학과 18, 010-4755-7233)
 SNS: 인스타그램 @snu_ubf3
 한 줄 소개: 성경 공부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Your Best Friend, UBF입니다!

1. 깊이 있는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선배와의 매주 일대일 성경공부, 그룹 바이블 스터디, QT모임 등 다양한 방식과 소재를 통해 말씀을 풍성히 배우고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나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성경공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2.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힘씁니다!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공부한다면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UBF에서는 말씀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글로 정리하며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3. 즐겁고 진솔한 교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하는 봄 가을 MT, 여름 수양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 UBF로 오세요~!

YWAM (Youth With A Mission, 예수전도단)

대표: 이조은(우주항공 20, 010-2098-2687)
 SNS: 인스타그램 @snuywam
 한 줄 소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서울대 예수전도단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모토 아래 사역하는 YWAM은 우리의 삶, 캠퍼스, 그리고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배하는 초교파적이고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학기 중 저희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캠퍼스모임으로, 목요일 6시 30분에는 서울의 모든 대학생 YWAMer들과 함께 캠퍼스워십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외에도 소그룹 모임, 묵상 모임, 책 모임 등 다양한 모임으로 가족됨과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방학 중에 저희는 국내 혹은 해외로 전도여행을 떠나며 전도여행이 어려울 때에는 재정을 모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 Mission Conference(MC)에서 전국의 YWAMer들과 함께 예배와 강의, 소그룹과 교제를 통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탄자니아와 동북아시아, 국내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신앙 OT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21학번 김유빈 형제입니다. 저는 2005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부모님과 함께 15년 동안 러시아에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러시아라는 땅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유독 2020년은 저에게 있어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부모님의 개척 교회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대학 입시, 코로나 확진, 허리 디스크와 같은 문제들이 겹치며 저는 많이 지친 상태로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작년 새내기 신앙 OT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형제자매들이

이곳 서울대학교에서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고, 또 귀한 공동체를 만나 러시아에서처럼 노방 전도를 함께 하고 영혼들을 만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흐르며 최근 저에게는 고민이 생겼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이 가치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하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하나님이 엄격하고 부담스러운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새내기 신앙 OT를 통해서 이러한 오해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신입생 때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번 신앙 OT에는 재학생으로서 참여했는데요. 이지웅 목사님께서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십계명에는 결혼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 중 첫 번째 계명은 원어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게 하여라"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그 누구도 있지 않게 하여라'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니 다른 영혼을 돕는 일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시듯 다른 사람들과도 동일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도와 양육에 대한 저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재학생의 영적 고민에 큰 활로가 되어준 22학년도 새내기 신앙 OT! 정말 고맙습니다.

김유빈(기계공학 21)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글을 쓸 때면 항상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진나빛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제안해주신 명현 선배와 동원 선배한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신앙 OT에 준비팀으로 지원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신입생으로 참여할 게 엇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다' 였습니다. 대학 생활의 첫 해 동안 참 많은 사람들과 만났는데, 그 많은 관계 속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참여했던 신앙OT에서 시작된 귀한 관계를

떠올리며, 2022년에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친구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 OT에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이번 OT 준비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예배였기에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고 마음을 바로잡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OT를 준비했던 헬퍼 팀원분들과의 나눔과 많은 사람이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자리였기에 조원들이 서로 어색해하지는 않을까, 진행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을까 긴장도 했지만 다행히 너무나도 좋은 조원분들을 만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

었던 작년과는 달리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조별 아웃팅도 진행될 수 있었던 점 또한 굉장히 감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직접 만나 얼굴을 보며 교제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얻은 은혜와 기쁨은 비대면으로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크기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쓰고보니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 글이 되었네요. 2022학년도에 입학한 새내기 친구들,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갈 모든 서기연 지체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가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다은(영어영문 21)



처음에 서울대학교에 새내기로서 들어가며 여러 걱정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들을 사귄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다니지? 신앙 생활은 어떡하지 등등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선교사 자녀로 살아오며 한국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어느 단체 채팅방에서 홍보를 통해 서울대기독교연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참여신청을 하긴 했지만 대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기연 신앙OT가 지루할 것이라는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팀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프로그램들은 즐거웠고 조원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온/오프라인으로 주어지는 조별미션들을 통해 조원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제가 걱정하던 대학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 여러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후에 진행된 오프라인 저녁집회도 매우 인상적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집회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이후로 저는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집회

에 참여하길 망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기를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저에게 필요했던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프로그램과 좋은 설교 외에 저의 마음을 건드렸던 것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라면 대학생활 안에서도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은비(노어노문 22)



2008년 9월 18일, 우리 가족이 러시아로 떠난 날이다. 다섯 살 MK가 된 날이기도 하다. 잘 모른 채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간 것이지만, 외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반 친구들과 생김새도 언어도 다르다는 것이 너무 싫었다.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학교에 입학했기에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주셨다. 한 해 한 해 지나며 점차 러시아의 삶에 적응해 나갔고, 나중에는 친구도 잘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었다. 어느덧 수험생이 되어서 진학을 결정해야 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자꾸 한국으로 대학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때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먼저 주님께서 서울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LDI라는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다. 그곳에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전도하는 것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다. 선망의 대상인 서울대 학생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에 걸려있고, 소망도 비전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LDI에서 배우며 주님께서는 내게 그 학생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감당할 준비한 동역자들을 이번 서기연 모임에서 만나게 해주셨다.

사실 최근에 입학일자가 가까워 오면서 내가 이 바쁜 학업 중에도 공부와 신앙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던 차였다. 간증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와 신앙에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가고 있

는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한 좋은 분을 보면서 나 또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다는 소망과 함께 확신이 들었다.

또 오랜만에 대면으로 참석하는 저녁 집회에서는 이지웅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 보다,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찰림과 사랑으로 다가왔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 스스로 먼저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결단할 수 있었다. 새내기 신앙 OT! 내게 많은 것을 안겨준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이러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환희(항공우주공학 22)

2021년 2학기 종강 예배

지난해 12월 20일(월) 오후 7시, 2021년 2학기 종강 예배가 드려졌다. 본래 교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제한적인 참여를 받아 대학총교회에서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열리게 되었다. 말씀은 조정민 목사(베이지교회)가 담당하였다. 주제는 “신앙의 능력”으로, 성경 본문 요한복음 12장 32-33절 말씀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거두는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찌드는” 것이라며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장에 50여 명,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현장에는 20학번, 21학번의 참여도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내 기독교인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명 “코로나 학번”들이 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인상 깊은 참석자도 있었다. 이지함(국어국문 20) 형제가 어머니인 김정아 집사(서울대 학부모기도회)와 함께 참석했다. 아래는 두 분의 소감이다.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열정을 불사르던 조정민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길을 찾아가는 젊은이들

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정아 집사)

“항상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방문했던 경험은 꽤 특별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신도분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은 시들하던 제 신앙에 조그만 불씨를 지퍼주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함 형제)



대표기도(정명현 대표)



설교(조정민 목사)



종강예배 포스터



찬양



준비팀 일동

서울대학교 선교 후원과 기도의 밤

2월 27일 오후 4시 30분, 대학총교회에서 서울대학교 선교 후원과 기도의 밤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벌써 21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서울대 선교에 뜻을 함께하시는 분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역을 보고하고, 새해의 비전을 나누며 기도하는 자리이다. 박형대 목사(대학총교회)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12장 8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그 뒤로 기독교수협의회 홍종인 교수, 서울대기

독인연합 정명현 대표, 대학총교회 선교팀, 본지 이경진 편집인의 사역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선교를 위한 헌금이 이루어졌다. 헌금송은 서울대 학부모 기도회에서, 기도는 조금희 권사가 담당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봉헌된 예물이 서울대학교 캠퍼스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이길 바라며,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에 전달되었다.



서울대학교 선교 후원과 기도의 밤

서울대 2022-원단금식기도회

2월 5일, 기독교수협의회가 주관하여 격년으로 개최하는 <서울대 원단금식기도회>가 500동 목암홀에서 열렸다. 원단금식기도회는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섬기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의 대표와 임원, 회원이 함께 모여 서울대학교와 우리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이다.

기도회는 총 다섯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은 15분의 찬양, 30분의 말씀, 그리고 30분의 기도로 이루어졌다. “찬양과 감사”를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는 성기문 기독교 대학총교회 이사장이 골로새서 3장 16-17절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회개”를 주제로 한 둘째 세션에서는 박형대 대학총교회 담임목사가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회개의 자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대학복음화”를 주제로 한 셋째 세션에서는 김순민 서울대 선교단체 협의회 회장(IVF 간사)이 마태복음 13장 24-30/36-40절 말

씀을 통해 캠퍼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였다.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주제로 한 넷째 세션에서는 박봉규 목사(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회목)가 누가복음 17장 20-21절과 마태복음 7장 21-2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기독교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다. “통일”을 주제로 한 다섯째 세션에서는 남승호 교수가 에베소서 2장 11-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였다.

찬양과 기도 또한 세션마다 여러 단체의 임원들이 돌아가며 맡았다. 서울대학교회 학부예배 찬양팀과 대학원 예배 찬양팀, 대학총교회 찬양팀, 선교단체간사협의회 찬양팀, 수요열린예배 찬양팀이 찬양을 드렸으며 정권대 서울대 기독교신우회 회장, 김훈연 서울대학교회 목사, 정

명현 서기연 대표, 조용희 서울대 학부모기도회 집사, 주우진 경영학과 교수가 기도를 인도하였다. 사회는 홍종인 화학과 교수(기독교수협의회)가 맡았다.

금식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단체의 대표, 임원, 회원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예배를 준비하였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도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긴 시간 진행된 기도회였음에도 대면 50여 분, 비대면 30여 분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다. 2022년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의 부흥의 해를 주시옵길 바라는 한 마음으로 함께 캠퍼스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분열하는 사회에서 우리 서울대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해 서울대 기독교 공동체의 공감대가 확인되었으며 계속 기도하며 생각해볼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더 큰 비전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유튜브 특강

기독교수협의회에서는 1월 4일부터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동영상 7편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발간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책,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서울: 부흥과개혁사) 가운데 몇 편을 선별하여 영상으로 옮긴 것이다. 물리, 기술,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선택되었으며 이학도가 아니더라도 듣기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영상 한 편의 길이도 10분 내외로 시청하기에 부담이 적다.

영상에서는 이 도서의 각 챕터를 맡았던 교수 및 연구자 분들이 직접 내용을 설명한다. 책을 읽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영상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을 전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미 읽었던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해 저자와 만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이 영상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더욱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독교인이 아닌 공과대학 C 학우는 이 영상 일부를 시청한 후, 본 기자에게 “이 영상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삶에 임하는

자세를 맞출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는 무조건 멀리하기보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이 채널에는 특강 외에도 여러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간증이 올려져 있다.

-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연속특강 내용**
- “빛과 시간” 이원중 교수 (물리천문학부)
 - “소중한 자연” 박정우 교수 (지구환경과학부)
 - “컴퓨터 기술” 하순희 교수 (컴퓨터공학부)
 - “창조적 유전자” 조제열 교수 (수의학과)
 - “진화의 증거는 충분인가?” 서은정 박사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 “한 나노과학자가 만난 하나님” 현택환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 “고난을 이기는 힘” 김영호 교수 (농생명공학부)





OT 포스터



OT 홍보물 비치



방송팀



신앙 OT 기획단

신앙 OT



저녁집회 찬양팀의 찬양

모습들



재학생 참가자 모임



온라인 프로그램



저녁집회 예배 준비



진행 연습 중인 프로그램 팀장들



저녁집회 예배 후 단체 사진